

교원 정원 줄이고 교권 침해까지... '이중고' 겪는 교사들

공급 부족으로 교원 업무 경감 우려 정부, 기간제교사 확대 가능성 시사 교원능력개발평가, 존재 의미 무색

학교 현장에서 학급당 교원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됐지만 정부는 한시적인 기간제 교사 확대를 시사해 대립하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교원 업무 경감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도 불거지면서 교사들의 이중고가 주목받고 있다.

◆정원 외 기간제 확대에 미래 교사들 반발

교육부가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 기간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교육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당초 정원의 기간제 교사 확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로, 코로나 19 대응 및 휴가, 출장 시 한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존의 목적이 존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4년 이후에도 해당 제한을 풀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최근 본지와



대구 동구 동대구초등학교에서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고 있다. /뉴스시스

의 통화에서 "2024년 이후에도 정원의 기간제 교사 확대 채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영속하는 것이 아닌 학령인구 감소, 고교 학점제 도입 등 교원 수요에 맞춰 수급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3월에 발표 예정인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도 대규모 교원 감축안임이

분명하다. 정원 외 기간제 교원 활용 방안과 교원양성체제 개편안까지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며 "공교육을 바로 세울 교원수급계획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현장에서는 학급당 교원 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교사 충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원 내 교사 채용은 줄이면서,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이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교육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교육 당국은 올해 교원 정원을 3000명 감축하

고, 임용시험 선발 규모도 2021년보다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 과밀학급 해소를 말하면서 이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인 '교원 정원 확대 방안'이 아닌 비정규 직교사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땀질식 처방의 전형"이라며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제도화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단체는 "학교 현장이 정규 교원 부족에 시달리는 동안 전국의 기간제 교사는 증가했다"며 "교원정원을 확대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년 반복되는 교원평가 잦음... 폐기 요구 쏟아져

교원능력개발평가에는 매년 교사에 대한 욕설·성희롱 등 교권, 인권 침해성 답변이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올해는 자유서울시 문항에서 교사를 비하하고 성희롱한 세종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입을 앞두고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모

욕평가'로 불릴 정도로 존재 의미가 무색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교원 단체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해 교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수준의 개선 의지를 보여 현장의 반응이 저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수사까지 의뢰하는 지경이 된 교원평가제가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리 만무하다"며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교원평가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도 교육부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전면 개선을 주문했다. 교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새로운 개선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시행을 유보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 달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평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연구 결과에 따라 교원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제도 폐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박사과정생도 연구비... 교육부, 9556억 투입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 지원 지난해 대비 예산 약 5% 증가

교육부가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를 지원하고자 각각 4172억원, 5384억원을 지원한다. 총 9556억원이다.

교육부는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학문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학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문사회·이공분야에서 각 분야별 종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총 1만5925개 과제에 대해

9556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예산은 약 5% 증가했고, 지원 과제 수는 약 4% 증가했다.

먼저 인문사회분야에서는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술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인문·사회과학 학술진흥(개인연구) ▲인문사회 연구 인프라 구축(집단연구) ▲한국학 진흥 ▲학술연구기반 구축 등의 사업이 구성됐다.

개인연구를 위해서는 학술·연구 초기 단계의 비전임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예산 및 지원 과제 수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해 박사과정생이 국가의 핵

심 연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집단연구의 차원에서는 연구소·대학 등이 학술연구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기반(인프라)을 구축·강화한다. 연구 인력의 지속적 육성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인문사회분야 융·복합 연구 및 사회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공분야는 이공학 학술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발전 지원 사업으로 구성됐다.

/신하은 기자

서울물연구원 활성탄 팽창률 자동 측정장치 개발

입상활성탄 세척 정도 판별

서울물연구원은 수도물 생산과정 중 입상활성탄(숯) 품질관리에 필요한 '활성탄 팽창률 자동 측정장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원이 개발한 활성탄 팽창률 자동 측정장치는 입상활성탄의 세척 정도가 적정인지를 빛을 통해 자동 판별할 수 있는 기기다.

현재 서울시는 수도물 원수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맛·냄새 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산화력이 강한 오존으로 소독하고 흡착력이 강한 '입상활성탄(숯)'으로 거르는 '고도정수처

리' 공정을 실시하고 있다.

활성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역세척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물속에 가라앉은 활성탄이 물 위로 떠오르는 정도를 '팽창률'이라고 한다. 팽창률을 20~40% 범위로 유지해야 활성탄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물연구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낙상, 소독용 잔류 오존가스 노출로 인한 안전 문제가 있었다"며 "활성탄 팽창률 자동 측정장치는 엘이디(LED) 센서로 활성탄 내 빛의 투과도를 측정해 팽창률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원리로 작동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수행기관 모집

전국 최초 청년금융지원 정책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이면 누구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전국 최초의 청년금융지원 정책인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함께 추진할 금융기관을 26일부터 3월 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세~34세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소액?

장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꿈에 도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하는 청년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1조 원으로 지원대상은 약 20만 명이다. 1인당 500만 원까지 비교적 낮은 협약금리로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추진된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계좌잔액이 0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 저축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대출과 저축

이 모두 가능한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설계해 청년 금융자립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상품의 세부설계와 실행 등을 수행하게 된다. 참가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청년에게 더 많은, 더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사업인 만큼 역량을 갖춘 금융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0 | 해질 / 17:50

1월 27일(금) / 음력: 1월 6일

수도권 날씨: -9 ~ -5°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지역별 날씨: 연천 -13/-6, 동두천 -12/-5, 가평 -12/-5, 파주 -13/-6, 서울 -9/-5, 양평 -11/-5, 수원 -8/-4, 용인 -8/-4, 평택 -9/-4, 백령도 -6/-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비타민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中내각 국무원 '역대 최대 규모 물갈이' 예상
▲바이든, 우크라이에 첨단 전투용 전차 31대 지원 /사진 뉴스시스

▲미국·독일 지원 탱크, 게임체인저 될까
▲정부, 개도국에 3년간 11.7조 지원 추진



▲中, 코로나19 사망자 대폭 감소... 병원 사망자 79% ↓ /사진 뉴스시스
▲일본 정부, 정보수집위성으로 北 군사 시설 감시